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명흠 장흥군수

“해당지구 지방산단 조성 전력”

“장흥지역에서도 제복을 입은 근로자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원스톱 체제로 전환,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델 케이스로 해당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이 군수는 당선 후 첫 시도로 ‘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이 명실상부한 물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장흥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탐진강 주변에 ‘물 인공폭포’를 조성, 은어와 참치가 아우러지는 먹거리, 볼거리 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탐진강 ‘물 축제’ 추진

이 군수는 “올 한해 장흥읍 해당 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올인하겠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는 2010년까지 공단조성’을 이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급 19일 실시됐던 재산거토 입성한 이 군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익혔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제대수’로서의 자신감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인·허가를 비롯한 제반업무

문화 동아리 행사

를 최대한 활용해 글짓기·그림 그리기 등의 문화 동아리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군수는 전업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



등을 갖춘 일명 ‘여성 향상센터’를 운영, 여성우대 시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물류와 관광,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목포~보성 경전선 철도개설 사업’이

2012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원사업인 광주~장흥과 장흥~대덕, 장흥~안양간 확·포장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 역점

지역 내 일부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흥과 강진간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통합을 위한 단서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 인구 이상의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성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말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와 관련된 ‘친·불친 보은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성군의회 4명 주민소환 청구

광주·전남 최초...농업·노인예산 삭감 문제삼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신청됐다.

17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7자로 장성군의 회 전체 8명 군 의원 가운데 4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접수됐다.

‘장성군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합 민주시

당 소속인 이들 군 의원들이 농업 및 노인복지예산 등 총 44억6000여만원을 삭감해 주민 대표로서 자질을 문 제삼기 위해 주민소환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투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농업 등 주민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는 35%이상 인상하는 등 군 의원들의 의무와 품위를 상실했다”며 “군 의원 전체를 소

환해야 하나 의정 공백 등을 감안해 각 선거구별로 1명씩 소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4번째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표권자 20% 이상 서명으로서 소환투표에 들어갈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3분 1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지게 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영산강 ‘호남운하’ 개설하라”

나주 11개 시민사회단체들 “수질 개선 등 위해 꼭 필요”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영산강의 ‘호남운하’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희망 광주·전남포럼, 영산강벚꽃길 연구소, 나주청년회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살리기 협의회’는 17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활한 물류소 통, 남도의 관광자원 활성화, 수질개 선 등을 위해 호남운하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난 15일 광주YM-CA에서 열린 ‘영산강 호남운하 타당성 토론회’는 호남운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참여

해 운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지역 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호남운하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지역정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남도가 직접 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수렴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구례군, 민원인 차량 지원

장애인·노약자 귀가 도와

구례군이 올해부터 ‘민원인 차량 지원 서비스제’를 운영한다.

차량지원 서비스 제도는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귀가를 돕게 된다. 군은 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읍·면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영암 ‘교육선진 1등 군’ 슬로건

장학재단 설립 50억 조성 착수

향우·기업 참여 유도

영암군이 ‘교육선진 1등 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영암군민장학회를 설립했다.

영암군은 지난 15일 장학금 50억 원을 목표로 군민장학회를 설립하고 군민, 향우, 관내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장학회 설립은 명문학교 및 인재육성을 통해 도시 학교와의 실력 차이를 줄여 지역민들이 자녀 교육문 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인 장학금이 없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묶여 기업체들의 장학금 기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면서 “이번 장학회 설립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4월부터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민장학회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선임 이사로는 신라현 영암군의회장과 김치국 영암교육장, 이종태 영암군 재경향우회장, 김재철 영암군 재광향우 회장, 김내규 영암산림조합장 등 15 명이 선임됐다. 또 상임사무국장은 김한남 영암읍주민자치위원장이 맡았고 장학회 사무실은 군립도서관 3층에 마련됐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완도군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북’ 발간

완도군이 최근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북’을 펴냈다.

완도군은 올해 군정운영의 기초를 ‘완도 성장동력 발전(發進)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청렴한 공직 분위기 정착을 위해 ‘공직 부패 격자 인사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감사부서의 사전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실

▲주민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부패의 발생원인 ▲개인차원의 부패방지 방안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완도군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이 수록돼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 부패 격자 인사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감사부서의 사전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실



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직 풍토 조성 과 부패없는 ‘클린 완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Advertisement for Sense Wood furniture store featuring a 'BIG SALE' banner, various furniture items, and promotional text. The banner includes '신규제품 입주기념 70~80% SALE' and 'Sense Wood'. The store name '센스우드가구 전문점' is prominently displayed. The advertisement shows a wide variety of furniture including sofas, chairs, tables, and beds, all arranged in a grid-like fashion. A large 'BIG SALE' text is written vertically in the center. At the bottom, there is a blue banner with the text '요한이네 합인매장'.